20210322

소그룹 아이들과 성공회대 구경을 하고, 유한대도 보고, ㅎㅎ 그리고 롤도 하고 저녁으로는 순대국밥도 먹었다. 회대는 작았다. 고등학교만 했다. 하지만 오히려 좋아. 공부만 할 수 있겠군 ㅎㅎ 글고 애들을 만나기 전에 너무 화장 하기 싫고 심지어 메이크업베이스랑 프라이머랑 바르니까 밀리더라 ㅎㅎ 그래서 세수 한 번 더 하고 그냥 쿠션만 발랐다. 글구 예빈이가 눈썹을 이쁘게 그려주었다. 고마웠다.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기 전 너무 무서웠다. 떨렸다. 소화도 되지 않았다. 하지만 아이들은 좋았다. 그리고 저녁에 영경이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자꾸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. 연락 줄여야지.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정신승리일까? 아닐까?

Im fine

Maybe its right

20210406

어제 일기를 오늘쓰네 (오늘:4/7) 어제 욜라리 꿀꿀한 하루엿삼ㅡㅡㅋ 걍 생일인데 연락도 안오고 우울하고 둘째증후군 이런영상 혹은 k-장녀 이거봤는데 꿀꿀했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별 게 아님 사실 잘 모르겠음 우울증인가..ㅋ

20210407

오늘부터 c언어 셤공부 시작한다..ㅋ

20210502

ㅋㅋㅋㅋㅋ ㅈㄹ c언어 졸 늦게 시작햇으면서 ㅋㅋ 아 쉬발 ㅇㅖ나야 제발 미루지마.. 오늘도 미뤄서 장학금 200인가 100인가 날라갓잖아 시발;;;아 재학증명서를 떼야지 이넘아ㅠㅠㅠ 아 미리미리좀 하셈 제발 머하냐 니..ㅋㅋㅋㅋㅋ 제발 미리미리 하셈 진심 주옥되기 싫으면 시발럼아!~~!~!~!~

20210614 (오전 2:22)

예나 하이~ㅋㅋ 난 요즘 셤공부(제일 안함) 도 하고 있고 자전거 타고있음 저번주 토요일에 엄마가 삼천리자전거 가서 사주심 ㅠㅠ 흐긓 넘 이쁘다 그래서 매일매일 탐 시발 오늘 노통 랑닭 너무 조까탔는데 시이이이발 자전거 ㅈㄴ탐 ㅋㅋ ㅈㄴ 울면서 시발 재수학원도 감 시발 ㅋㅋ 걍 자전거 타면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없애야 인생을 살 수 이:T을 것 같음. 어떻게든 되겄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야지 이 느끰 씨잉발..

그래서 하는 노통랑닭 한줄 정리

1. 손님왔을떄는 어서오세요~몇분이세요?드시고가세여?(큰목소리로.)
2. 배달 꼬옥 부르기
3. 배달 체계좀 익히기..
4. 목소리ㅡ크게존나크게 시발 시발 억룽루해
5. 아아아 죽어어어어어ㅓㅓㅓㅓ

다시는 일기를 쓰는 날이 오지 않도록.. peace!!!!!!!!1118..18zz

20210619 오후 11:45

예나..ㅋㅋ하이..ㅋㅋ…하..왜케 눈물만 나오냐 바보같네..휴 결국 못한 내 잘못이 맞으니까 인정할게.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구..! 내가 해야할 것들 정리좀 할게 예나야 할 수 있어!! 다 조빱이야~!!!

1. 멍때리지 말기, 주의집중(띵, 알림, 테이블)
2. 내버려두지말기, 내 꺼만 하기(마무리 필수), 하다가 달려오지 말기(오지랖 부리지 마)
3. 배달 부르기(내가할게!!)
4. 빗자루는 할 거 없을때만! 자주 하지마!!
5. 언니가 치우고 있으면 나는 걸레랑 칙칙이 가져가기
6. 쿠팡이츠나 배민원이나 포장 그리고 요기요테이크아웃은 내용물 확인이 먼저!!
7. 한달이나 됐는데, 일을 안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.!